5월 북한매체 보도 동향

1. 농업정책

□ 농업정책

○ 모내기를 제철에 끝내고 농업생산의 돌파구를 열자 (로동신문 5.1)

- 모내기를 제철에 끝내기 위한 사회주의증산경쟁을 전국에 호소하는 강서구역 궐기모임이 4월 30일 청산협동농장에서 진행되었음.
- 이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홍순길 남포시당위원회 비서, 관계부문, 농근맹일군들, 강서구역의 농업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음.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내기가 한해농사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농공정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내기를 제철에 끝낼 데 대하여 말하였음.
- 과학농사의 시대에 맞게,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풀어나가야 함. 모판관리공들과 물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실한 모를 키워 논에 내며 트랙터 운전수와 모내는기계 운전공들은 농기계수리정비를 잘하여야 함.
- 모임에서는 사회주의증산경쟁요강이 발표되었음.

○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어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자 (로동신문 5.5)

- 모내기는 한해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농공정일 뿐 아니라 많은 노력과 농기계, 영농물자를 집중하여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해야 하는 공정임.
- 올해의 이상기후현상은 모내기의 모든 공정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 봄철에 들어와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져 영농공정이 10여일 앞당겨지고 강수량이 적어져 서해지구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가뭄이 들고 있음. 이상기후현상이 지속되어 모내기에서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함.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에서 봄철기온이 높아 볏모의 생육이 빨라지고 가뭄이 들고 있는 조건에 맞게 모내기를 바로하고 노력과 농기계들을 총동원하여 함.
- 속성모, 영양냉상모, 영양알모, 이른큰모, 단지모를 비롯한 선진적인 볏모기르기방법들을 많이 도입한 조건에서 일정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논물잡이, 써레치기, 논두렁매질 등 선행공정들을 앞세워야 함.

- 전국, 전민이 모내기를 도와주어야 함.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농사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모내기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물자들을 무조건 제 날짜에 보장해주어야 함. 전력공업 부문에서는 양수설비의 만가동보장에 필요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보내주어야 함. 해당부문에서는 화학비료와 트랙터, 모내는 기계의 만가동 보장에 필요한 부속품과 연유를 비롯한 영농물자를 계획대로 제 기일에 보장해주어야 함.
- 모든 일군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은 모내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올해 알곡목표를 달성해야 함.

□ 과학영농

○ 소출을 높인 간석지논벼재배 (로동신문 5.21)

- 온천군 안석협동농장 제8작업반에서는 앞선 간석지논벼재배방법을 받아들여 최고수확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알곡을 생산했음.
- 지난해 이 작업반에서는 성형알판을 이용하여 볏모를 밭상태로 키워냈음. 성형알판을 이용하면 씨뿌리기를 적은 노력과 영농자재로 할 수 있어 좋고 많은 종자를 절약할 수 있음. 성형알판을 이용하면 품을 적게 들이면서 모판을 만들 수 있어 유리하고 볏모를 키우는 기간이 냉상모를 키워낼 때보다 훨씬 줄어들었음.
- 지난해 작업반에서는 종자가 80~90% 싹트기 시작하였을 때 뿌렸음. 씨를 뿌린 다음에는 영양흙으로 복토를 하고 비닐박막을 씌움. 모판의 수분이 부족하면 성형알판턱을 넘지 않게 물을 댔다가 뽑았음.
- 작업반에서는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모내기를 함. 염기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7일에 한 번씩 물을 뽑았다가 다시 대었음. 이때 얕은 물대기와 포화수식 물대기를 하였음.
- 6월말부터는 중간 물말리기를 함. 뿌리썩음병이 생기는 포전들은 2~4일간 물을 댔다가 뽑고 7일 동안 말렸음. 아지치는 시기에는 논벼의 생육상태를 보아가며 얕은 물대기와 포화수식물대기를 했는데 대체로 한 대의 벼에서 7~8대의 이삭아지가 생겼음.
- 비료시비는 논벼의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하였음. 이때 생육전반기비료시비를 중시하고 후반기 비료는 논벼의 잎색을 보아가면서 주었음.
- 가을은 9월말부터 시작하였는데 이삭당 알수가 지난 시기보다 수십알이나 더 많음. 그 결과 논벼 정보당 소출이 최고수확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함. 이것은 간석지 농사에서 전에 없던 성과였음.
- 지금 농장에서는 지난해 제8작업반의 농사경험과 교훈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올해

많은 면적의 논에 새로운 논벼재배방법을 받아들이고 있음.

○ 농업용 지적제품도입에서 중시한 문제 (로동신문 5.22)

- 최근 몇 년 동안 국가과학원에서는 농업용 지적제품들을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지난해에만 식물학연구소의 식물성종자활성제, 잔디연구분원의 식물영양강화제, 레이저연구소의 레이저종자처리기술, 나노재료연구소의 직류고전압종자처리기술과 같은 종자처리제와 방법들이 개발되었음.
- 이와 함께 식물학연구소의 식물성농약, 미생물학연구소의 티오균비료, 중앙실험분석소의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 국가균주보존연구소의 강성 88호균을 이용한 유기질비료생산기술이 농업부문의 80여만 정보의 면적에 도입되어 생산을 늘리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음.
- 올해에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은 대수의 레이저종자처리장치, 직류고전압종자처리장치들, 27만 정보에 해당한 식물성종자활성제를 비롯한 종자처리기술과 방법들이 중요한 영농공정의 하나인 종자처리에 도입되었음.
- 닭, 오리를 비롯한 가금류의 털에서 추출한 복합아미노산과 금강약돌에서 뽑아낸 수십 가지의 미량원소, 희토류원소들을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만든 물풀림성 비료인 아미노산미량원소 복합비료는 생산공정이 간단하고 원가가 적게 들어 현재 전국 농업부문 많은 단위에서 광범히 하게 생산 및 이용되고 있음.
- 현재 국가과학원에서 평안북도의 농업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휴대용 수자식(숫자식) 토양분석기 연구제작 (로동신문 5.22)

- 국가과학원 중앙실험분석소에서 종합적인 휴대용 수자식(숫자식) 토양분석기를 연구제작하였음.
- 이곳 과학자들이 연구개발한 숫자식 토양분석기는 토양의 폐하, 부식함량, 질소, 인, 카리뿐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철, 붕소, 망간, 규소 등 미량원소분석도 할 수 있어 종합적인 토양분석기의 모습을 갖추고 있음.
- 이들이 연구개발한 휴대용 숫자식 토양분석기는 안주시, 태천군, 연안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에 도입되어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토양의 변화상태를 제때에 알게 하고 그에 맞게 개량대책을 세우며 과학적 시비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해주는 휴대용 숫자식 토양분석기는 손쉽게 다룰 수 있음.

○ 다수확 영농공정체계확립에 모를 박고 (로동신문 5.22)

- 농업과학원 평안남도 농업과학분원에서는 다수확영농공정체계를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몰두함.
- 분원에서는 분원과 농업과학원산하 전문화연구소들을 비롯한 다른 과학연구단위에서 이룩한 수많은 농업과학기술성과들을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였음.
- 이에 기초하여 도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 품종에서 최대의 소출을 낼 수 있는 농업기술적 대책을 하나의 농사체계로 집약적으로 정립하는 사업에서 성과를 거둠.
- 이 다수확영농공정체계는 예를 들어 논벼농사인 경우 적지에 맞게 어느 한 품종이 선택된 다음에는 모기르기, 비료주기, 모내기에서의 출발대수, 논물관리, 김잡이 등 모든 영농공정에서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영농기술과 방법들 가운데서 그 품종에 가장 알맞은 합리적인 방법과 기술만을 선택하여 체계화함으로써 농장에서 누구나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분원에서는 도의 특성에 맞게 실리가 큰 온실에서 큰모기르기에 의한 논벼재배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 과학농사는 알곡증산의 확고한 담보 (로동신문 5.25)

- 일반적으로 과학농사란 모든 영농공정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하며 현대과학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기술적 요구에 맞게 짓는 농사임. 즉, 농사차비로부터 낟알털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농공정을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한다는 것을 말함.
- 북한의 지대적 조건과 특성에 맞게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고 그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것은 주체농법의 기본요구임.
-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논벼, 강냉이, 감자, 콩농사와 두벌농사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계통적으로 늘려야 함.
- 농업부문에서는 종전의 비료나 농약에 비하여 생산원가와 정보당 사용량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효과가 높으면서도 사용방법이 단순한 아미노산미량원소 복합비료와 후민산염, 천연종합광물질비료, 식물성장활성제, 성장조절제, 나노살균제, 고농도인세균비료, 다원소액체비료, 극미량살초제 등을 널리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늘려나가야 함.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농장에서 트랙터운전수와 농업근로자의 기능급수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며 기능공들을 내세워줘야 함. 기술학습도 정상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주도록 해야 함.
- 기술일군들은 어느 포전이나 환히 꿰뚫고 포전별 작물과 품종배치, 재배형식, 목표

수확고, 비료시비량 등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농업근로자들을 이끌어나가야 함.

- 분조장을 비롯한 초급일군들은 과학기술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함.

2. 벼농사

▢ 모내기

○ 적기보장에서 틀어쥔 문제 (로동신문 5.9)

- 문덕군 농장이 벌써 100여 정보의 논에 모내기를 하였음.
- 모내기를 적기에 끝내기 위해 군에서는 우선 마른논써레치기에 힘을 쏟음. 마른논써레치기를 받아들이면 물논써레치기에 비해 능률을 훨씬 높이면서 연유를 절약할 수 있음.
- 농장에서는 트랙터를 집중하여 마른논써레치기를 끝내고 분조별로 논두렁짓기를 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논두렁짓기를 끝낸 포전순서로 물을 대면서 물논써레치기를 하도록 함.
- 일군들은 모내기를 적기에 끝내기 위해 모내는 기계의 가동률을 높이도록 한 것임. 영양냉상모, 속성모, 영양알모를 받아들인 면적이 지난해보다 훨씬 늘어났지만 품이 얼마 들지 않게 되었음.
-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들을 낼 수 있게 모내는 기계를 개조하는 사업도 추진하도록 대책을 세움. 모내기가 시작되자 일군들은 이동수리역량을 현장에 내 보내어 예비부속품도 제때에 보장하고 모내는 기계에 이상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게 하였음.

○ 영광의 포전에서 모내기 시작 (로동신문 5.13)

-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모내기가 시작되었음.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볏모키우기와 논갈이, 써레치기를 비롯한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모내기준비를 갖추고 매일 모내기실적을 높이고 있음.
- 5월 10일 농업성과 평안남도당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군안의 책임일군, 해당 부문 일군이 원화협동농장을 찾아 첫모를 내는 농장원과 함께 모내기를 함.
- 작업반, 분조에서는 대용비료를 적극 이용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충분히 마련하여 포전에 내도록 하였음.
- 농산 제1, 2, 3, 4 작업반을 비롯한 협동농장의 작업반, 분조에서도 한해농사에서 모내기를 제철에 끝내는 것이 갖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모내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모내기에 들어갔음.

○ 모내기시작부터 기세 좋게 전진 (로동신문 5.15)

- 평안북도에서 10일부터 모내기를 시작하였음.
- 석하, 토성, 중제협동농장을 비롯한 신의주시안의 모든 협동농장에서 모내는 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고 역량을 집중하여 많은 면적의 논에 모를 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운전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논갈이와 써레치기를 선행시키고 모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실한 모를 논에 내도록 기술지도를 하였음.
- 운하, 대오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협동농장의 일군과 근로자들은 선진적인 영농방법을 받아들이면서 모내기를 진행함.
- 박천군과 정주시, 곽산, 선천, 철산, 염주, 동림, 태천군을 비롯한 도안의 모든 시, 군의 협동농장에서도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모내기실적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 황해남도 재령벌에서도 볏모가 자란 상태와 지역의 자연기후조건에 따르는 모내기최적기를 바로 정하고 모내기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안악군 오국협동농장과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이 모내기에 앞장섬. 예년에 보기 드문 가뭄을 이겨내며 볏모를 잘 길러낸 이곳 농업근로자들은 써레치기를 앞세우면서 모내기 시작함.
- 배천군 조옥희협동농장, 연안군 정촌협동농장을 비롯한 연백벌의 농장에서는 많은 면적의 논써레치기를 진행하였음.
- 은률, 은천, 강령, 옹진, 태탄, 송화군을 비롯한 도의 다른 군에서도 모내기를 일정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

○ 모내기전투에 역량을 총동원 (로동신문 5.20)

- 농촌을 물질적으로, 노력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성, 중앙기관들의 지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전력공업성에서는 농촌에 필요한 전력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설비들과 선로에 대한 점검보수를 실속 있게 진행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양수설비의 만가동 보장에 요구되는 전기를 우선적으로 보내줌으로써 농촌에서 모내기를 일정대로 할 수 있게 하였음.
- 트랙터의 만가동에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 등 많은 영농물자들을 마련하여 신계군 마산협동농장에 보내줌.
- 올해 들어 1만여 제곱미터의 비닐박막과 수만 점의 중소농기구와 농기계부속품을 비롯한 많은 영농물자를 곡산군 서촌협동농장에 보내준 체신성에서는 노력지원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음.
- 화학공업성과 경공업성, 외교단사업총국,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일군들은 영농물자와

중소농기구를 마련해서 해당농장에 나가 모내기를 도와주었음.

- 조선자연보호연맹, 조신기자동맹 중앙위원회에서도 마련한 영농물자를 해당 농장에 보내주고 모내기를 도와주고 있음.
- 황해남도에서는 수십만 제곱미터의 비닐박막과 40여종 근 32만점의 중소농기구, 20여종 근 3,000점의 트랙터 부속품을 비롯한 많은 영농물자들을 농장에 보내주고 노력지원을 강화하였음.
- 양강도를 비롯한 다른 도에서도 농촌지원사업이 진행됨.

○ 모내기와 강냉이밭 두벌김매기에 역량을 집중 (로동신문 5.26)

- 모내기를 성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동창, 대관, 삭주, 천마, 벽동, 향산군을 비롯하여 평안북도안의 시, 군의 190여개 협동농장에서 모내기를 끝냈으며 강냉이밭 두벌김매기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신의주시에서는 석하협동농장을 전형단위로 내세우고 역량을 집중하여 모내기를 진행하는 동시에 강냉이밭 두벌김매기에 힘을 쏟도록 하고 있으며 석하협동농장에서는 지난 23일까지 모내기를 성공적으로 끝냈음.
- 운전군, 룡청군을 비롯한 평안북도의 모든 시, 군에서도 전형단위를 정하고 그 단위를 앞서기 위한 모내기와 강냉이밭 두벌김매기를 진행하고 있음.

○ 전형단위 경험 일반화에서 중시한 문제 (로동신문 5.27)

- 안악군의 모내기실적이 70%계선을 넘어섰음. 안악군에서는 전형단위인 오국협동농장의 모내기경험을 모든 농장에 일반화하기 위해 사업을 조직함.
- 군일군들은 오국협동농장의 모내기 경험에 기초하여 모든 농장에서 포전별특성에 따라 써레치기를 앞세우면서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기술적 요구대로 보장하도록 하는데 힘을 쏟음.
- 운전군, 룡청군을 비롯한 평안북도의 모든 시, 군에서도 전형단위를 정하고 그 단위를 앞서기 위한 모내기와 강냉이밭 두벌김매기를 진행하고 있음.

○ 알곡 정보당 10톤 생산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 (로동신문 5.30)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함주군 동봉, 태천군 은흥,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과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전문농장, 재령군 삼지강,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에서 모내기를 성공적으로 끝냈음.
-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서 25일까지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에서도 지난해보다 한주일 앞당겨 모내기를 마무리 함.
-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는 보름동안에 모내기를 끝냈으며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전문농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모내기를 마무리 함.

-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 물대기와 써레치기를 앞세워놓고 1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모내기를 끝냈음.

○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로동신문 5.30)

- 황해북도의 농촌들이 모내기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음.
- 지난해보다 앞당겨 시작된 올해의 모내기에서 사리원시와 곡산, 은파군이 앞서나가고 있음. 곡산군은 자연흐름식물길의 덕으로 물걱정 없이 논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게 된 조건에 맞게 매일 모내기를 120%이상 넘쳐 수행함.
- 은파군에서는 논면적이 많은 지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물보장대책을 세워 모내기를 일정계획대로 추진함.
- 서흥군, 평산군에서는 모든 협동농장에서 키운 모를 제때에 질적으로 내어 매일 계획을 넘쳐 달성하였음.
- 도에서는 마지막 고비에 들어선 모내기를 끝내기 위해 총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모내기가 결속단계에 들어섰다 (로동신문 5.31)

- 평양시의 농촌에서 모내기가 마감단계에 들어섰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29일 현재 사동구역, 순안구역을 비롯한 구역, 군의 많은 농장에서 뒷그루면적을 제외한 기본면적의 모내기가 성공적으로 끝났음.
- 사동, 순안구역에서는 지난해보다 한주일이나 앞당겨 모내기를 마무리하는 성과가 이루어짐.
- 사동구역에서는 이번 모내기에 영양알모와 영양단지모가 많이 도입되는데 따라 써레치기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힘을 넣었음. 구역에서는 논두렁짓기와 논판고루기, 모뜨기를 선행하여 모내기의 속도를 높였음.
- 오류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는 지난해보다 한 주일을 앞당겨 모내기를 제일먼저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역포구역 류현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는 한 주일만에 모판자리모내기까지 전부 끝냄.
- 시적으로 논면적이 제일 많은 락랑구역 금대협동농장에서는 농장의 모든 기계화수단과 노력을 총동원하여 뒷그루면적을 제외한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질적으로 해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강남군의 농장에서는 뒷그루면적을 제외한 기본면적의 모내기가 성공적으로 끝났음. 현재 강남군의 영진, 당곡, 신정협동농장이 모내기를 선참으로 끝내는 성과를 거둠.

3. 밭농사

☐ 강냉이

○ 강냉이심기가 끝났다 (로동신문 5.13)

- 평안북도의 농촌에서 강냉이심기를 끝내는 성과를 이루었음.
- 당조직의 지도 밑에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모든 협동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강냉이심기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지키도록 경제조직사업을 해나감.
- 강냉이밭 면적이 많은 삭주군에서는 지난해 강냉이농사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거름과 소석회를 많이 내고 영양단지준비를 선행시켜 강냉이심기를 적기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운전군과 정주시, 박천군과 선천군, 곽산군을 비롯한 해안연선의 시, 군의 협동농장에서도 빠른 시일에 강냉이심기를 전부 끝냈음.
- 강냉이심기를 끝낸 도안의 협동농장일군과 농장원들은 정보당 소출을 높이기 위해 가뭄으로 인해 생긴 빈포기가 없는지 따져보며 밭관수와 물주기 등 강냉이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 강냉이심기를 끝내고 김매기 시작 (로동신문 5.15)

- 남포시에서 김매기를 하고 있음. 시안의 역량이 총동원되고 강냉이영양단지모 옮겨심기가 각 구역, 군협동농장에서 일어남.
- 와우도구역의 일군들은 강냉이모를 충실하게 키우고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시적으로 제일먼저 강냉이영양단지모 옮겨심기를 끝냈음.
- 천리마구역, 강서구역, 항구구역에서도 김매기에 들어감.
- 강원도도 강냉이심기를 끝내고 김매기를 시작함. 특히 지난해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회양군의 포천협동농장과 강돈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강냉이심기를 일정계획보다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안변군과 천내군, 원산시와 고산군, 통천군, 문천시와 고성군의 협동농장에서도 강냉이심기를 계획한 날보다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4. 감자농사

☐ 감자농사

○ 감자심기에서 일대 혁신 (로동신문 5.13)

- 양강도의 감자산지에서 감자심기가 한창임.
- 도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도에서는 삼지연군을 올해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역량과 수단을 총집중하여 수백정보의 면적에 흙깔이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삼지연군의 보서, 통신농장을 비롯한 해발고가 낮은 지역에서부터 감자심기를 하도록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대홍단군에서는 감자심기를 적기에 끝내기 위하여 모든 노력과 기계수단을 농촌에 집중하였음. 군에서는 홍암농장 제4작업반포전에서 보여주기를 진행하여 대홍단식과학농법을 구현하는데서 필요한 기술적 요구를 농업근로자에게 인식시킴.
- 군농업경영위원회 일군들이 운전수들과 함께 트랙터를 타고 포전을 누비며 평당포기수보장과 감자묻어주기를 정확히 하도록 기술적 지도를 함.
- 농장에서는 군의 특성에 맞게 감자종자를 옳게 선정하고 종합적인 기계수단을 적극 이용하여 감자심기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백암군에서도 감자심기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으며 백암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농촌자재상사의 일군과 종업원들은 영농시기에 절실히 필요한 비료, 연유 등 영농물자보장사업에 힘을 넣어 감자심기를 뒷받침하고 있음.
- 옥천, 천수, 은덕지구 농장들을 비롯하여 군의 모든 농장에서 감자심기에 노력과 기계수단을 총집중하고 있음.

○ 감자심기 한창 (로동신문 5.15)

- 랑림군에서 감자심기가 한창임. 이곳 농장에서는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들과 부림소들의 이용률을 높여 밭갈이를 하고 감자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 서중, 갈점, 대흥을 비롯한 다른 협동농장에서도 매일 많은 면적에 감자를 심고 있음.
- 군에서 열흘 남짓한 기간에 50%이상의 밭면적에 감자를 심는 성과가 이룩됨.

5. 축 산

▢ 축산동향

○ 풀판조성과 대상건설에서 혁신 (로동신문 5.22)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기관에서 한 달 동안 먹이풀판조성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방풍림조성을 위해 1,40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음.
- 수매양정성, 인민봉사총국, 대흥지도국, 보건성, 최고검찰소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해당 단위 일군과 힘을 합쳐 수십 정보의 먹이풀씨뿌리기를 진행함.
- 국가과학원돌격대에서는 100여 정보의 자연풀판에 칡산을 조성하고 여러 동의 살림집 기초콘크리트치기에서 월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음.
- 자강도여단 일군과 돌격대원들은 방풍림조성을 위한 17만여 그루의 나무와 250여

정보에 뚝감자를 심음.

- 건설건재공업성, 화학공업성,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에서는 계획된 건설자재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노력을 통해 성과를 확대해 나감.

○ 강서돼지공장 현대화공사 완공 (로동신문 5.24)

- 남포시의 일군과 근로자들이 짧은 기간에 능력이 큰 강서돼지공장 현대화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넓은 부지면적에 종축사, 비육사를 비롯한 생산건물들과 고기가공공장, 먹이가공공장과 같은 보조생산건물까지 포함하여 10여동의 건물들이 훌륭히 개건되었음.
- 공장에는 종합적인 실시간 감시조종체계가 확립되었으며 모든 생산공정들이 현대적인 설비로 갖추어짐.
- 이 공장에 종합감시조종체계가 확립되고 물공급계통의 자동화, 각 호동의 실내온도 보장설비에 대한 원격조종이 실현되었음.

6. 농업기반

□ 토지정리, 간석지, 국토관리 사업

○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성과 확대 (로동신문 5.26)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4만여 정보에 수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400여 킬로미터의 도로기술개건을 진행하였으며 1,700여 킬로미터의 강하천을 정리하였음.
- 황해남도 봄철나무심기에서 1만여 정보에 창성이깔나무, 세잎소나무, 잣나무 등 근 6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음.
- 벽성군에서는 구덩이파기와 나무모보장을 앞세우면서 근 1,000정보에 밤나무, 창성이깔나무, 세잎소나무 등 여러 가지 수종의 나무를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심어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음.
- 평안북도 동림군, 삭주군에서는 단계별나무심기계획을 세우고 창성이깔나무, 잣나무, 아카시아나무, 평양단풍나무 등 여러 가지 수종의 나무를 심었음.
- 도로기술개건을 위한 사업이 추진됨. 평안북도 이천군, 통천군, 금강군, 천내군에서는 도로폭 확장공사와 옹벽공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지구의 다리들을 보수하여 윤전기재들의 안전한 운행과 주민들의 교통상 편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함.
- 자강도와 황해북도의 우시군, 초산군, 자성군, 강계시, 수안군, 서흥군, 인산군, 장풍군에서는 큰물피해를 받았던 여러 지역의 다리를 보수하면서 도로폭확장공사를 하여 도로기술개건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강하천정리사업이 진행됨. 평안남도의 성천군, 안주시, 개천시에서는 강하천바닥파기를 앞세우면서 제방쌓기를 하여 큰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할 수 있게 함.
- 황해북도의 승호군, 수안군, 서흥군, 곡산군, 중화군, 신계군에서는 강하천바닥을 파내고 제방을 쌓으면서 이 일대를 변화시켜 나갔음.

▢ 물길공사, 저수지, 물보장 사업

○ 서흥군에서 자연흐름식 수도화 실현 (로동신문 5.19)

- 서흥군의 읍지구에 자연흐름식 수도화가 실현되었음.
- 다층살림집들에도 먹는 물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합리적인 설계를 완성하였으며 수도화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였음.
- 기관, 기업소의 근로자들과 읍지구 주민들의 참여 속에 수만 미터가 되는 수도관 늘이기 공사가 완공되었음.
- 군에서는 살림집뿐 아니라 공공건물에까지 수돗물이 흘러가게 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7. 산림

▢ 통나무 생산

○ 연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 완수 (로동신문 5.4)

- 121호 임업연합기업소 통나무생산자들이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완수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 자서 임산사업소가 제일먼저 연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수행하였음. 사업소의 황철, 개운성, 성동작업소가 연이어 연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낸 기세로 물길에 의한 마감나르기를 6월말까지 끝낼 목표를 세우고 그 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부전, 상창 임산사업소에서 통나무베기를 앞세우면서 자동차와 임철기관차에 의한 통나무수송을 함.
- 연합기업소에서는 연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각 사업소에서 압록강의 물길을 이용하여 더 많은 떼를 내리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음.

▢ 나무 심기

○ 수유나무를 대대적으로 심고 가꾸어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자 (로동신문 5.24)

- 수유나무를 많이 심어 기름문제를 푸는 것은 당의 정책임.

- 전국적으로 수만 정보의 수유나무림이 조성되어 해마다 그 열매생산이 늘어나 가까운 앞날에 수유기름으로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망이 보이고 있음.
- 수유나무림 조성이 갖는 경제적 효과성을 잘 알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함.
- 수유나무는 해발고가 높은 북고산지대를 제외한 모든 산림토지에 심을 수 있으며 땅을 크게 가리지 않음. 산지에 옮겨 심어서 3년부터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여 10년이면 그루당 평균 5kg, 30년생에서 최고 60kg까지 수확할 수 있음. 70년까지 열매가 왕성하게 달리며 100년까지도 열매를 딸 수 있음.
- 재배에서 품이 매우 적게 드는 반면에 열매의 기름함유량은 마른씨앗에서 46%로 경제적 효과성이 높음.
- 각 시, 군의 수유나무림사업소에서는 수유나무비배관리에 대한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함. 정보당 그루수를 철저히 보장하고 재래종을 우량한 품종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서흥군수유나무임사업소를 본받아 모든 시, 군의 수유나무림사업소에서는 양묘장을 꾸려놓고 필요한 나무모를 자체로 생산보장하여야 하며 나무모상태에서 우량품종을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함.
- 임지개간, 열매따기 등 노력이 많이 드는 시기에는 수송수단보장, 건조장꾸리기 등 필요한 대책을 제때에 세워야 함.

8. 기타 작물

☐ 과수

○ 병해충구제에 좋은 농약을 자체로 (로동신문 5.28)

- 평양시에서 또 하나의 규모가 큰 남새온실건설이 1단계 공사가 끝나고 2단계 공사도 마감단계에 있음.
- 봉홍, 종산, 라하, 문동과수농장을 비롯한 군의 과수농장에서는 새로 조성할 과수원에 정보당 100톤 이상의 질 좋은 거름을 실어낸 기세로 보름동안에 40여만 그루의 사과, 배, 복숭아나무심기를 질적으로 끝냈음.
- 평양, 선덕, 황주, 구성, 장연, 삼청과수농장에서는 1,300여 정보의 과수원에 우량품종의 갖가지 과일나무를 심는 성과를 이룩함.
- 서흥군, 중화군을 비롯한 황해북도 시, 군의 협동농장에서는 도적으로 500여정보의 과수원에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를 심었음.
- 평안북도와 황해남도의 협동농장에서도 봄철에 100여만 그루의 갖가지 과일나무를

심는 성과를 거둠.

❑ 남새

○ 덕을 보는 온실안의 우물 (로동신문 5.9)

- 평성시 삼화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배추, 오이 등 수십 톤의 온실남새를 생산하여 시안의 주민에게 공급해준데 이어 5월에도 작황 성과가 좋음.
- 농장에서는 겨우내 우물이 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실 안에 우물을 파 놓기로 결정함. 온실 안에 우물을 파놓으면 남새생육에 좋은 온도의 물을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마음껏 쓸 수 있었음.
- 우물파기는 4일 동안 진행됐고 17개 호동의 온실에 우물을 파는 성과를 거둠.

○ 매일 많은 버섯을 생산 (로동신문 5.12)

- 함경북도에 큰 버섯공장이 세워짐. 모든 생산공정이 현대적인 설비들로 갖추어진 버섯공장에서는 매일 많은 양의 버섯을 생산하고 있음.
- 도 도시설계연구소에서 탁아소, 유치원, 살림집건설설계를 완성하였으며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연관단위에서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보장하여 건설을 잘 마침.
- 건설된 버섯공장에서 생산되는 버섯은 도안의 주민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

○ 온돌식발효법으로 생산성과 확대 (로동신문 5.15)

- 모란봉구역 채과도매소는 버섯기르기를 잘하는 단위로 알려짐. 이곳에서 버섯재배경험을 배우기도 하고 여기서 생산된 활성감탕원종균과 비닐구럭(망태기)에 넣어 배양한 재배 블럭을 구입하기 위해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음.
- 여러해 전 이곳 일군과 종업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버섯생산을 할 수 있는 100제곱미터의 종균장과 150제곱미터의 재배장을 세웠음. 그리고 도시에서 버섯재배를 안전하게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여 생산량을 체계적으로 늘림.
- 도매소에서는 파종종균생산도 재배기질생산도 착화탄을 이용한 온돌식발효법으로 진행하고 있음. 12제곱미터의 온돌식 발효장에서 한 번에 재배기질을 600킬로그램씩 발효시켜 생산하는데 20개의 착화탄을 이용하고 있음.
- 이들의 경험에 의하면 착화탄을 이용한 온돌식발효법으로 파종종균과 재배기질을 생산하면 많은 노력과 연료를 절약하면서도 균배양기일을 5~6일정도 단축하고 균배양 성공률은 95%이상 담보하며 버섯수확률을 80%이상 보장할 수 있다고 함.

○ 버섯생산의 공업화 (로동신문 5.25)

- 김정은은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하는 것을 적극 일반화여야 한다.”고 말함.

- 버섯생산의 공업화기술은 종균생산, 기질생산, 버섯기르기의 모든 공정들이 여러분야의 현대과학기술과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고도의 집약화기술임.
- 세계적으로 설비투자가 많은 종균생산은 국가적 규모에서, 가장 품이 많이 드는 기질생산은 지역적 범위에서, 재배는 현대화된 전문공장과 함께 중소규모의 버섯공장에 종균과 기질을 보장하여 생산을 안전하게 하는 분산재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지금까지 확립된 버섯의 공업적 생산기술은 크게 멸균법과 미생물발효법으로 되어있음.
- 미생물발효법은 원료에 자연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고온성유용미생물을 선택적으로 발육시켜 버섯균이 흡수하기 힘든 원료성분들을 가공하는 기술임.
- 미생물발효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버섯의 기본품종은 볏짚버섯, 비늘먹물버섯, 느타리버섯임.
- 버섯공업화의 다른 한 방향은 흰곤봉버섯, 참나무버섯과 같은 버섯생산에 적용되는 멸균기질에 의한 재배기술임.
- 주원료는 농림부산물과 쌀겨, 밀기울, 콩깨묵 등을 쓰며 기질의 멸균이후 최종작업은 엄격한 무균조작으로 이루어짐.
- 버섯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적 요구는 영양가치가 높고 수확성이 높은 버섯품종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 활성이 높은 종균의 생산기술을 표준화하고 질이 높은 기질생산기술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임.
- 버섯생산의 공업화를 위해서는 버섯의 생육조건을 보장하며 생산을 집약화 할 수 있는 재배환경의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해야 함.

9. 기타 보도 동향

□ 비료, 거름

○ 주체비료생산 1.7배 이상 장성 (로동신문 5.18)

- 화학공업성의 해당 단위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5월 17일 현재 영농비료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7배 이상으로 늘어났음.
- 압축기직장, 2페로직장과 암모니아, 요소비료생산, 출하공정을 맡은 단위에서도 공정간 협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생산 과학화 수준 높이기에 실적을 올리고 있음.
- 발생로직장, 요소직장, 원료직장, 1,2합성직장에서도 비료생산에 혁신을 창조하고 있음.

○ 주목되는 흙보산비료 생산방법 (로동신문 5.29)

- 금강지도국돌격대에서 비닐박막을 이용한 흙보산비료 생산방법을 이용하여 효과를 보고 있음.
- 비닐박막을 이용하여 흙보산비료를 생산하는 방법은 겹으로 된 비닐박막을 일정한 길이로 자른 다음 한쪽 끝부분을 끈으로 매주어 주머니처럼 만들었음. 그리고 그 안에 혼합한 원료를 250~300kg정도씩 넣은 다음 주머니의 윗부분을 공기가 통하지 않게 끝으로 잘 매주었음.
- 이것을 이용해 흙보산비료생산과 관련된 작업은 끝나고 그 후 완성된 제품을 해당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용하면 됨. 쓰다가 남은 비료는 주머니에 그대로 두고 입구만 잘 묶어놓으면 훗날 다시 이용해도 그 질이 변하지 않음.
- 생산공정이 단순한 이 방법은 여러 측면에서 좋은 점이 많았음. 우선 땔감을 전혀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흙보산비료 생산에 필요한 온도와 습도를 보장할 수 있었음.
- 또한 차단능력이 좋은 비닐주머니 안에서는 비료성분을 그대로 축적할 수 있었음. 뿐만 아니라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이 고인 상태에서도 흙보산비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음.
- 한편 이 방법은 노력을 절약하고 운반 및 이용과 보관이 편리하며 비닐박막을 여러 번 회수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매우 실용적임.

▢ 기상

○ 가물피해를 철저히 막자 (로동신문 5.4)

- 전반적 지역에 가뭄이 들고 있음. 올해에 들어와 서해안과 동해안 지역에서 적은 비가 내렸으며 2월 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의 강수량은 평년에 비하여 수십mm나 적음. 서해지구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가뭄은 농사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금은 강냉이영양단지모 옮겨심기가 한창이고 모내기가 시작되는 시기임. 지금처럼 한해농사에서 물이 많이 필요한 때는 없음. 이러한 시기에 지속되는 가뭄현상은 강냉이영양단지모 옮겨심기와 논써레치기에 지장을 주고 있음. 또한 이미 심어놓은 밀, 보리, 감자 등 여러 가지 농작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올해 알곡생산모표의 달성여부는 가뭄피해를 막는가 못 막는가에 달렸음.
- 각지 농촌에서 가뭄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함. 물원천을 모조리 찾아 가뭄피해를 막는데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하고 양수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농업부문 일군과 근로자들은 더 많은 물원천을 확보하는 동시에 설비와 시설들을 총동원하여 논밭관수를 하여야 함.

- 포전머리에 지하수시설을 설치해놓고 물을 퍼 올려야 하며 고랑관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뭄을 타는 포전에 물을 대야 함. 강냉이영양단지모들이 가뭄피해를 받지 않도록 옮겨심기를 할 때 포기마다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함.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가뭄피해를 막기 위해 기상기후조건에 맞게 농작물 비배관리를 해야 함.

○ 6월 상순까지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논벼농사대책 (로동신문 5.28)

- 5월 하순과 6월 상순에 주로 이동성 고기압과 오호쯔크해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견됨.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크고 동해안지방에서 보통정도의 냉한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음.
- 평균기온은 6월 상순에 전반적 지방에서 14.3~20.1℃로서 평년보다 0.1~0.5℃낮을 것으로 예견됨. 강수량은 6월 상순에 전반적 지방에 15~27mm로서 평년보다 4~12mm 적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써레치기를 선행시키고 물관리를 잘하여 논이 마르지 않도록 하며 모내는 기계정비를 잘하여 볏모가 깊이 꽂히거나 물에 뜨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함.
- 벼모판관리를 잘해야 함. 기온이 높은 조건에서 모판물기를 밭상태로 유지하며 모판에 계속 물을 대어 볏모가 헛자라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함. 모뜨기전에 볏모 잎색이 떨어지지 않도록 영양관리를 잘하며 모판소독을 철저히 진행하여 벼이파리에 의한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함.
- 뒤그루모판에 싹이 돋아 나온 후 잎수가 1.5~2잎 되는 시기에 질소비료를 평당 150g정도 주어야 함.
- 논벼생육전반기비료를 적기에 주며 5월말까지 모를 낸 포전에서 아지비료를 모낸 후 10~15일 사이에 주도록 해야 함.
- 모내기 전과 모낸 후 논벼의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살초제처리를 규정대로 진행하며 특히 마른논써레치기, 이랑재배, 두둑재배가 많이 도입되고 있는 조건에서 살초제에 의한 김잡이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함.
- 모살이시기 논물관리를 모종류별로 잘해야 하며 직파한 논벼의 비배관리를 잘해야 함. 물관리를 포화수식이나 간단 물대기방법으로 해 싹나오기를 촉진시켜야 함. 살초제처리를 규정대로 진행하여 김을 철저히 잡아야 함. 직파한 벼의 잎나이가 2잎 되는 시기에 질소비료를 정보당 100kg정도 주어야 함.
- 동해안지대에서는 냉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내기를 빨리 끝내 지대별 특성에 맞게 심는 밀도를 철저히 보장하고 논물관리와 비료주기를 잘해야 함.

▢ 수산업

○ 이동식그물우리양어성과 확대 (로동신문 5.13)

- 평양시양어관리국은 대동강의 자연수역을 이용하여 이동식그물우리양어를 활발히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이동식그물우리양어는 간편하면서도 기동성 있고 물고기생산량이 높으며 수역에 대한 적응성이 좋아 발전정망이 좋음.
- 일군들은 기념어, 화련어, 잉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물고기생산을 늘리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 대동강 페하(PH) 측정을 정상적으로 하고 먹이보장 대책을 세움. 관리공들은 자신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물고기기르기와 이동식그물우리관리를 기술적 요구대로 함.
- 이들이 조사한데 따르면 지난해 5월 이동식그물우리에 넣은 수십 그램짜리 물고기가 현재 수백 그램이 되게 자랐음.

○ 만선의 배고동소리 높이 울린다 (로동신문 5.19)

- 평안북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 보산수산재배어업협동조합은 매월 수산물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음.
- 일군들은 5만 세제곱미터의 목재와 수백 킬로그램의 철근을 해결하고 발동발전기를 자체로 설치하여 부족한 전기를 보장하면서 배수리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함.
- 조합에서는 연유와 어구자재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진행함.
- 계획수행기간 이곳 협동조합에서는 35정보의 조개양식장에서 조개를 생산할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음.
- 조합에서는 지난 몇 해 동안 많은 시멘트와 레인, 대형 권양기[1]를 해결하여 배수리를 자체로 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추어 놓음.

1) 밧줄이나 쇠사슬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